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RTICLE INFO

Received: 27 May 2021

Revised: 7 July 2021

Accepted: 17 August 2021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Secondary

KEYWORDS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lective-centered Curriculum/
course selection/
high school credit system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과목 선택/고교학점제

ABSTRACT

Kim, Sung Hye. (2021). A study on improving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Modern English Education*, 22(3), 34-44.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o do so,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electives in terms of differentiation. Newly introduced in the curriculum, career-related electives were not clearly defined regarding topic, achievement standards, and level. Seco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ourse completion, the study analyzed the number of elective courses which were mainly selected and identified which courses were highly utilized and its reasons. The results showed that out of the eight elective courses offered by the curriculum, general electives were mainly selected at schools. It was also found that career-related electives were not differentiated clearly enough, which caused difficulties in teaching and evaluation. Final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ch strengthens students' rights to choose subjects according to their career paths, level, and interests, it would be necessary to secure the differentiation of subjects and to systematize course completion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course selection.

I. 서론

Ministry of Education(MOE, 2021)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 총론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고, 2022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 교육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반성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고시 직후부터 학계에서는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많다. S. Lee(2016)는 공통 교육과정의 변화를 분석하여 핵심역량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내용체계표가 기능 중심 교과인 영어과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표와 성취기준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S. H. Kim(2017)은 내용체계표의 제시, 핵심역량의 반영,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중심 평가와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성취기준에 역량의 반영이 부족하고, 고등학교에서 신설된 진

김성혜(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Tel: (043) 931-0425 / Email: shkim@kice.re.kr

로 선택 과목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Y. Kim(2018)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체계표가 다른 교과와 내용체계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개별 교과 고유의 성격과 목표를 반영하는데 타당성이 부족하고, 내용 적정화를 구현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적용상의 쟁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S. H. Kim(2020)은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쓰기 성취기준의 적절성 부족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검정 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된 만큼 교과서 분석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M. Kim과 T. E. Kim(2020) 그리고 I. O. Kim(2018)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쓰기 활동의 구성과 유형,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초등 3~4학년군 읽기 영역의 파닉스 지도 내용과 수업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거나(H. Choi & S. H. Park, 2020; M. Mun & H. Chung, 2019; Y. B. Yoon, 2019), 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영역의 문화 내용을 분석하였다(S. Im & H. Ihm, 2020; E. Jeong & D. Jung, 2020; H. Lee, 2019). 이외에 교과서의 읽기 난이도에 대한 연구로, 초등 5~6학년 영어 교과서의 이독성 지수를 분석한 연구(E. Hwang & K. Park, 2019), 초등 6학년 교과서의 난이도를 살펴본 연구(J. Lee & Y. Y. Park, 2020),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J. Bae, 2019) 등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 분석과 교과서의 내용 및 활동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반영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모두 초등학교급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공통 교육과정 특히 초등학교급에 초점을 둔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 과정으로 구분되고, 초·중학교 교육과정인 공통 교육과정에 관심이 더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은 고교학점제라는 고등학교 학제의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및 축적하여 졸업하는 제도(MOE, 2021, p. 9)”로 고등학교 교과별 과목 구조 개편을 주요 변화

의 축으로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적성·진로를 고려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연구 주제는 이전 교육과정의 ‘적정성’이었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적정성은 선택 과목의 수와 구성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적정성을 과목의 차별성과 활용성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목 편제에 따른 교과목의 특징과 성격을 규정하는 교과목 구성의 원리는 무엇이고, 이에 따라 교과목이 차별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 2)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목 활용도는 어떠한가, 선택 과목 편성·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II.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분석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활성화를 위하여 보통 교과와 과목을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 다양화하였다.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2015, p. 15)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이 개설되었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 영역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으로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른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와 과목 편제는 표 1과 같다. 공통 과목인 영어는 필수 이수 과목이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 I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TABLE 1
Subjects in the Elective-centered English Curriculum (MOE, 2015a)

General Subjects	Common Courses	
	English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I English Reading and Writing English II
Elective Courses	General Electives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I English Reading and Writing English II
	Career-related Electives	Practical English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Career English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Specialized Subjects I	Foreign Language Strands	Advanced English Speaking I Advanced English Speaking II Advanced English I Advanced English II Advanced English Reading I Advanced English Reading II Advanced English Writing I Advanced English Writing II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MOE, 2015b)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별표 영역 등 문서 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구분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선택과목별 차별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격과 목표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영어 교과 역량의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목 공통 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외의 ‘성격’과 ‘목표’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영어 회화는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 영어 I 은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과목’으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4기능 통합과목, 영어 독해와 작문은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과목으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 영어 II는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군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과목’으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4기능 통합 과목이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적으로 실생활과 기초 학문 영역에서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기능 통합 과목인 영어 I 과 영어 II, 영어의 2기능(듣기와 말하기 또는 읽기와 쓰기)을 분리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인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성격’에는 이들 과목은 공통 과목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네 과목 가운데 영어 II를 가장 수준이 높은 심화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목별 ‘성격’과 ‘목표’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실용 영어는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 영어권 문화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과목’, 진로 영어는 ‘취업 및 일반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 계발을 위하여 영어를 학습하는 과목’, 영미 문학 읽기는 ‘영미 문학 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들은 문·이과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실용 영어는 실생활 체험 학습을 위한 과목이고, 영어권 문화와 진로 영어는 진로 안내 학습 과목이다. 영미 문학 읽기는 진로 안내 학습 과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반적인 영어 교과 학습 내용을 심화한 수준의 심화 과목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성취기준

성취기준 진술에 있어 과목별 차이는 다루고 있는 소재의 위계에서 나타난다.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가까운 주변의 화제 → 일상적 화제 → (친숙한)일반적 화제 → 다양한 화제’로 성취기준 진술 체계를 명료화하여 설정한 바 있다(KICE, 2005). 이를 기반으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소재의 범주가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 주제(초등학교) → 친숙한 일상생활 주제(중학교) → 친숙한 일반적 주제(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MOE, 2015b).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주제를 수준에 따라 세분하여 성취기준에서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 → 비교적 다양한 주제 → 다양한 주제’ 순으로 수준이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말하기, 쓰기의 경우는 듣기, 읽기 영역보다 다소 주제의 수준을 낮게 구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일상 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 순으로 수준이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의 주제를 동일하게 제시하되 교과별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즉, 과목별로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 ‘영어권 문화’, ‘다양한 직업 및 진로’, ‘문학 작품’을 각각 주제로 다루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 중, 고 학교급별로 학습 내용의 위계와 성취기준 간의 연계성을 구조화하여 제시한 ‘내용체계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듣기, 읽기 영역에서는 언어 기능의 요소 즉 세부 내용, 중심 내용, 맥락, 함축적 의미로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지식에 따라 성취기준을 진술하였다. 말하기 영역은 의미 전달 또는 의미 교환, 쓰기 영역은 문장 또는 작문(글 쓰기)과 같은 언어 산출(output)의 수준에 따른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반화된 지식에 따라 성취기준을 진술하였다.

성취기준의 양적, 질적 특성은 과목을 구분 짓고 과목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2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 가운데 영어 4기능을 모두 다루고 있는 영어,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의 성취기준의 개수를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의 개수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각 영역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범주별로 1~2개, 영역별로는 총 5~6개 정도이다.

일반 선택 과목의 영어 I 은 공통 과목 영어보다 말하기 영역에서 성취기준이 1개 더 많으며, 영어II는 영어 I 보다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이 1개 더 많다. 또한 성취기준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말하기 영역 ‘의미 교환’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영어에서는 1개이나 영어 I, 영어II에서는 2개이고, 쓰기 영역의 핵심 개념 ‘작문’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영어, 영어 I 에서는 3개이나 영어II는 4개로 영어II가 보다 심화된 과목임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는 달리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의 수준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성취기준의 소재가 동일하게 제시되었고, 말하기, 쓰기의 성취기준의 개수가 듣기, 읽기보다는 많다. 그러나

TABLE 2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High School English Subjects (MOE, 2015b)

Domain	Key Concept	English	English I	English II	Practical English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Career English
Listening	Details	1	1	1	1	1	1
	Main idea	1	1	1	1	1	1
	Context	3	3	3	2	2	3
	Total	5	5	5	4	4	5
Speaking	Delivering messages	3	3	3	3	2	3
	Exchanging messages	1	2	2	2	2	3
	Total	4	5	5	5	4	6
Reading	Details	1	1	1	1	1	1
	Main idea	1	1	1	1	1	1
	Context	3	3	3	2	2	2
	Implication	1	1	1	-	-	-
	Total	6	6	6	4	4	4
Writing	Sentence	3	3	3	2	4	3
	Paragraph	3	3	4	2	2	3
	Total	6	6	7	4	6	6

¹ ‘내용체계표’는 영어 교과의 내용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감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어과에서는 학생이 습득해야 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각의 언어 기능을 유형화하여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목표를 ‘일반화된 지식’으로 지칭하였다. 내용체계표의 ‘내용 요소’에는 언어 입력 자료의 수준(예, 낱말, 어구), 소재(예, 주변의 사람, 사물), 언어기능의 세부 요소(예, 줄거리, 주제, 목적)를 명시하였다(MOE, 2015b).

질적 측면에서 어려운 수준의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읽기 영역의 함축적 의미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개발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렵지 않은 주제(실생활 중심의 주제 등)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도 성취기준 개수와 특성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실용 영어보다 진로 영어의 말하기, 쓰기 성취기준의 개수가 더 많았으며, ‘글쓰기(작문)’의 성취기준 수가 많고, 어려운 수준의 언어기능요소를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 영어가 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 할 수 있다.

3. 어휘 지침과 언어형식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언어 재료인 소재, 어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별표] 영역에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휘 지침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에 3,000개의 단어군을 제시하고 교과서 개발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어휘 목록 외의 어휘를 기존의 20%에서 10%로 축소하였으며, 고등학교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I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어휘 400개를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어휘 수는 영어가 1,800개 내외이며, 선택 과목에서는 영어 회화는 1,500개 이내, 영어 I 과 실용 영어는 2,000개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과 영어권 문화는 2,200개 이내, 영어II와 진로 영어는 2,500개 이내, 영미 문학 읽기는 3,000개 이내로, 영미 문학 읽기가 어휘 수 측면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언어 형식의 경우 초, 중, 고의 수준을 명시함으로써 학교급 간 연계성과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행 학습을 예방하고 학습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의 83개의 예문에 대하여 학습 시작이 가능한 학교급을 고등학교로 명시하였다.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은 과목 공통사항으로 동일하게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다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점’, ‘평가방법과 유의점’을 차별화하여 선택과목별로 교수·학습과 평가의 설계에 도움

이 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은 교수방법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과 평가 변화를 통해 함양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문서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기술은 상세하지 않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진로 선택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 실행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안내 자료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체험 활동, 언어 기능 통합 활동, 다양한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을 위한 교수방법, 교수·학습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에 대한 예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KICE, 2017, 2018). 특히, MOE(2018)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²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적성과 진로 탐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평가 부담의 완화를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A, B, C의 3단계 평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과목의 차별성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은 성격 및 목표, 성취기준 진술, 어휘 선정 및 언어 형식을 통해 과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신설된 진로 선택 과목은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의 진술은 선택과목 간의 차별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성격, 목표, 성취기준 측면에서 과목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재와 어휘 수도 과목 간의 차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교과목별로 제시된 ‘성격과 목표’가 유사하고,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4기능 과목인지 2기능 과목인지에 따른 구분만이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목 간의 허용 어휘수는 대체로 차이가 있으나, 허용 어휘수가 같은 과목도 있다. 또한 각 교과별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및 유의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대부분이 공통사항으로 과목의 성격이나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취기준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다(KICE, 2005). 과목간의 성취기준의 진술에서 언어기능요소(내용 요소인 세부 내용, 중심 내용 등)와 인지 처리나 행동(기능)은 유사하여, 소재를 제외하고는 성취기준의 진술이 과목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목별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성취기준의 조합을 통하여 과목

² <교육부훈령 제24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 포함),
- 전문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 전문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80% ~ 100% = A; 60% ~ 80% = B; 60% 미만 = C

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코드가 상이할 뿐 교과 간에 성취기준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와 영어 I의 듣기 영역의 경우 각각 성취기준 앞에 제시되는 코드가 [12영회01-01], [12영 I 01-01]로 차이가 있으나 성취기준은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로 동일하다(MOE, 2015b). 성취기준에 제시된 ‘일반적 주제’ 등과 같은 제시된 소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주제’, ‘영어권 문화에 관한 주제’,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관한 주제’, ‘문학 작품에 관한 주제’는 진술에 과목명을 포함하고 있어 의미를 구체화하기 어렵다.

III.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활용성

1. 영어과 선택 과목 활용 현황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위하여 선택 과목의 활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여, 과목수를 증대하고, 특색 있는 과목들을 개설하였더라도 이를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고,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약하는 실행상의 쟁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몇 개의 선택 과목을 주로 선택하는지, 어느 과목의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교과목 이수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야 하겠다.

S. Cho와 H. Kim(2018)은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선택 과목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공통 과목인 영어는 전국 1,740개교에서 91.6%의 학교가 1학년에서 8단위로, 6.5%의 학교가 6단위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462개교의 선택 과목 개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어 I 과 영어 II의 조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어 I 과 영어 독해와 작문의 조합(15.8%), 영어 I 과 영어 회화의 조합(4.8%), 영어 I, 영어 II, 실용영어 조합(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과목별 선택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영어 I

을 선택한 학교가 95.6%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어 II는 57.8%, 영어독해와 작문은 32.0%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전반적으로 20% 미만의 학교가 선택하고 있었으며, 실용 영어는 18.1%과 영어권 문화는 15.3%의 학교가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현황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가운데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시범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의 10개 학교, 경기의 20개 학교 총 30개의 학교의 사례를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일반 고등학교는 29개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1개교였다. 30개 학교에서 공통 과목인 영어를 1학년 1학기에 4단위, 1학년 2학기에 4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 학기별 선택 과목의 편성·운영은 표 4와 같다. 선택 과목 수는 학교지정 선택 과목과 교과 간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2학년 1학기에는 영어 I, 2학기에는 영어 II를 학교 지정으로 학생 공통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교과 간 선택 과목으로 학생의 선택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편성하는 경우에 대체로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를 교과 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였다. 학교 지정 과목의 경우는 학기별로 4단위의 편성이 많았으며, 교과 간 선택 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는 경우에 학기별로 3단위나 2단위로 편성하여 1~2개의 과목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3학년의 경우에 학교 지정보다는 교과 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어 독해와 작문, 전문 교과 I 과목을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I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 과목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영어 I, 영어 II가 영어의 4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면서 입시 준비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에서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 독해와 작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 Selec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General Electives				Career-related Electives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I	English Reading & Writing	English II	Practical English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Career English	Reading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215	1397	468	845	265	224	118	161
14.7%	95.6%	32.0%	57.8%	18.1%	15.3%	8.1%	11.0%

출처: S. Cho와 H. Kim (2018, p. 81) 일부 수정.

TABLE 4
Organization of English Curriculum in High School Credit Schools (Unit: No. of Schools)

	Courses	Year 2		Year 3		Total
		1st semester	2nd semester	1st semester	2nd semester	
1	English Conversation	2	0	1	6	9
	English I	29	5	0	0	34
	English Reading and Writing	1	3	15	6	25
	English II	1	25	6	3	35
2	Practical English	6	6	1	4	17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3	4	5	7	19
	Career English	1	1	7	5	14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3	3	1	2	9
3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	1	0	1	1	3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II	0	0	0	0	0
	Advanced English I	3	3	5	4	15
	Advanced English II	1	0	0	2	3
	Advanced English Reading I	1	1	8	8	18
	Advanced English Reading II	0	0	0	4	4
	Advanced English Writing I	0	1	1	1	3
	Advanced English Writing II	0	0	0	3	3

1 = General Electives, 2 = Career-related Electives, 3 = Specialized Subjects I.

TABLE 5
Organization of English Curriculum in General High Schools

	Subjects	Year 2		Year 3		Total
		1st semester	2nd semester	1st semester	2nd semester	
General Electives	English Conversation	0	0	0	3	3
	English I	10	1	0	0	11
	English Reading and Writing	1	1	9	4	15
	English II	3	11	1	1	16
Career-related Electives	Practical English	1	1	3	6	11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0	0	0	1	1
	Career English	2	2	3	1	8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0	0	1	3	4

문과 전문 교과 I 의 심화 영어 I 과 심화 영어 독해 I 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영어 사용의 필요성이 낮은 영어 학습 환경과 독해의 비중이 높은 수업과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지 않은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하고자, 서울, 경기 지역 일반고의 선택 과목 편성 ·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선택 과목 편성 시의 고려 사항과 선택 과목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5는 14개 일반 고등학교의 2학년과 3학년에서 선택한 과목을 제시한 것이다. 선택 학교 수는 학교지정 교과목의 수치이다.

일반 고등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2학년 1학기과 2학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 I 과 영어 II 를 각각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에는 일반 선택 과목의 영어 독해와 작문을 선택하거나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였으며, 진로 선택 과목 가운데에는 실용 영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들 과목을 편성할 때는 주로 3~4단위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영어 I, 영어 II 를 학교에서 공통으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질적인 필수 과목 기능을 하고 있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는 제한적이다. 선택 과목은 다양하여도 필수 과목 기능을 하는 과목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동시에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2. 영어과 선택 과목 활용 현안

교사들에게 교과목 편성 시 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과목의 수준 및 과목 간의 위계, 수능 출제 과목, 학생의 진로, 수준, 학생의 수요, 실용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학교 수업 시수 및 교사 수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학교 수준 및 학생 특성이 교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면, 입시에 관심이 많고 학생의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교는 고2에 영어 I (1학기), 영어 II (2학기)를 편성하고 고3에는 영어교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수능에 필요한 타교과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짐. 특히,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됨. 영어과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시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교사 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교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침. (선택 과목 개설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교사의 서술 의견)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경우는 영어 회화나 영어 독해와 작문과 같은 2기능 과목의 활용성이 미흡하고, 교과서로 구현된 교육과정의 수준과 학생 수준과 괴리가 있으며, 과목들의 위계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2기능 학습 과목 보다는) 4기능 학습에 충실한 수준에 따른 과목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고 학생들도 수준별로 기본에서 심화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함. 영어 I 과 영어 II은 교과서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교과서마다 영어 I의 수준이 차이가 나서 어떤 교과서의 영어 I은 영어 II와 수준이 비슷한 경우가 있음. 영어 I이나 영어 II나 교과서에서 구현 방식이 비슷하여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순서로 읽기 소재만 다르고 영어 I보다 어휘만 조금 더 추가한 정도여서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음. 영어 II에서는 읽기 페이지 수를 더 늘린다거나 쓰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함. (선택 과목 개설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교사의 서술 의견)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의 도입이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학교 현장의 정착을 위해서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공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로 선택 과목의 성

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입시 제도의 영향으로 신설한 진로 선택 과목의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사에게 친숙하지 않고 생소하므로 개설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시에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낮아, 학생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과목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어권 문화의 과목 정체성 부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어권 문화는 정체성이 부족함. 영어, 영어 I, 영어 II 등의 과목에서도 영어권 문화는 학습이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이며, 영어권 문화를 중심 소재로 하는 글을 교과서에서 제시했다고 해서 영어권 문화 학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문화라는 측면이 하나의 개별 교과로 분리되어 학습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선택 과목 개설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교사의 서술 의견)

진로 영어도 직업 분야를 위한 실무 영어 능력(예, 토익 영어 등) 향상을 위한 교과목인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교과목인지가 불명확하여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르치는 교사 역시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진로 영어는 전공별로 알아야 할 영어를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 등 실용적인 측면은 실용 영어와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롤 모델 등의 진로와 관련된 영어 글 등은 기존 영어, 영어 I, 영어 II 교과서에서도 제시되므로 진로 영어도 진로를 안내하는 과목인지 진로를 준비하는 과목인지 등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지 않은 과목임. (선택 과목 개설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교사의 서술 의견)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은 신설 과목으로서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교수·학습의 안내서 역할을 해 줄 교과서의 부재도 진로 선택 과목 활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도서인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의 5책은 검정도서로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의 3책은 인정도서로 고시되었으나, 영미 문학 읽기는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은 과목 성격은 명확하나, 교과서가 없으며 교사 재량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 교과목을 처음 맡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도서를 어떻게 수업해야 하는가에 대해 막막함을 느낄 수 있음. 또한 교사의 수업 역량이 요구되고,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어 교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음. (선택 과목 개설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교사의 서술 의견)

학교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실용 영어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MOE(2019)에서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성격상 쉬운 수준의 과목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으로 공통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용 영어는 쉬운 수준의 교과목이 아닌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체 과목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MOE(2020)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기본 영어 과목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기본 영어 과목 역시 성취기준의 수가 오히려 실용 영어보다 많고, 언어 기능 모두에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이해와 표현 기능의 소재 차이가 없어, 쉬운 수준의 교과목으로 적절하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2015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활용 시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선택 과목 간의 수준과 내용 차별화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준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수준을 설정하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 수준과 진로 연계와 학업에 필요한 심화 수준 등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과목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 목적 영어교과목(English for General Purposes: EGP), 학업 목적 영어교과목(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특수 목적 영어교과목(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전공분야의 학술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 일상 영어를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실용 목적의 영어를 익히는 과목, 진로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교과목으로 성격 규명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다. 이미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실무 영어를 ESP로 개발하였으며(KICE, 2005), 앞으로 ESP 과목의 확대를 위해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MOE, 2021, p. 19)³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설정되었

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구성 체제가 발표된 만큼 선택 과목 구성 체제의 적절성, 적절한 과목수와 과목 구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의 다양화를 위하여 종합적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과목과 특정 기능에 특화된 과목이 필요한지,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주요 언어 기능이 무엇인지, 학생에게 실용적 요구가 있는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진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과목 경계 설정을 위한 타당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편제에 따른 교과목의 활용성과 활용 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2015 개정 선택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 과목 체제에 따라 과목 내용을 특성 있게 구성하였으며, 진로 선택 과목의 신설을 특징으로 학생의 진로에 따른 교과목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과목의 내용은 소재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어휘나 성취기준에서 중복이 있어 과목 간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선택 과목의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평가할 때,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8개 선택 과목 중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하여 진로 선택 과목의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 과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입시준비와 관련성이 적은 과목에 대한 학습 동기 결여, 교과서에 반영된 교육과정의 수준과 학생 수준과의 괴리, 교과서 부재 등 교수·학습 및 평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과목별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성 부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외국어로 배우는 언어 학습의 환경을 고려할 때, 수준을 세분화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과목별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육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학생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³ 고교학점제 개편 방안에 따른 보통 교과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공통 과목은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이다. 선택 과목의 일반 선택은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융합 선택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진로 선택은 교과별 심화학습(일반 선택 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이다. 전문 교과와 전문 공통은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 과목, 전문 일반은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문 실무는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이다.

과목의 차별성 확보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계 설정이나 이수 경로 체계화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과목의 성격이 명확하여 이수 경로 설정의 체계화가 가능하여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일반 선택-융합 선택-진로 선택의 체계로 구조화되어 이에 따라 적절한 과목 수를 설정하고, 과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진로에 따른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만큼 다양한 진로 영역을 고려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목의 수를 확대하되, 다양한 ESP교과목 개발시에는 교과목별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택 과목 활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 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20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현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이해가 충분하여 선택 과목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고교학점제가 영어교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영어과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MOE, 2021)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존 204단위(교과 180단위)에서 192학점(교과 174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취득 학점의 변화를 고려한 영어 교과에 적절한 이수 단위, 이수 시기, 필수 이수 경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의 이수 단위, 이수 시기, 필수 이수 경로 등에 따른 수업 시간의 변화는 학습량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교과목에 적절한 어휘수의 증감, 성취기준의 양적·질적 변화 등 교육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REFERENCES

- Bae, Jiyoung. (2019). A continuity analysis of the reading passag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with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3(2), 81-107.
- Cho, Sangsik, & Kim, Hyunkyung. (2018). *Survey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lective course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 Choi, Heekyong, & Park, Seon-Ho. (2020). An analysis of phonics activities from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6(3), 55-79.
- Hwang, Eunkyung, & Park, Kwanghyun. (2019).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ding passages in English textbooks between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 unde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6(3), 99-119.
- Im, Sohye, & Ihm, Heejeong. (2020).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5th and 6th graders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1(3), 181-195.
- Jeong, Eunsook, & Jung, Dabin. (2020). An analysis of the connections between reading materials and culture, and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5th and 6th grade English textbooks. *Primary English Education*, 26(4), 29-50.
- Kim, In-Ok. (2018). An analysis of writing activities in the 3rd and 4th grade English textbooks based on 2015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Linguistics and Literature*, 60(3), 339-359.
- Kim, Min-ji, & Kim, Tae-Eun. (2020). An analysis of writing activities of 5th and 6th grade English textbooks fo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6(3), 5-28.
- Kim, Sung Hye. (2017). Analysis of chang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dern English Education*, 18(3), 91-111.
- Kim, Sung Hye. (2020).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content appropriateness in Korea's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Teaching*, 75(2), 93-110.
- Kim, Yongsuk. (2018). An analysis of content structure matrix for primary English education i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4(4), 31-59.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5). *A study on English curriculum improvement*.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18998&s=kice&m=030109>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 *The commentary for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ddle and high school*.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1600012777&dbt=TRKO&m=>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igh school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English-speaking culture and English literature reading*.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536&s=kice&m=030109>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Developing the assessment standards of the high school career-related selective subjects*. <https://www.kice.re.kr/resrchBoard/view.do?seq=423&s=kice&m=030109>

- Lee, Hae-kyoung. (2019). Cultural analysis of 5th-grade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based on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15-Focused on race, gender, multi-cultural elem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245-253.
- Lee, Ji Woong, & Park, Young Ye. (2020). A Coh-Matrix-based analysis of 6th grade English textbooks fo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6(4), 137-157.
- Lee, Soyoung. (2016). Major changes and issues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With a focus on its common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499-519.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607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0&s=moe&m=040401&opType=N>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he enclosed book no. 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607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0&s=moe&m=040401&opType=N>
- Ministry of Education. (2018, January 31). *Directive amendment of student assessment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ess releas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3185&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
- Ministry of Education. (2019).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partial amendment* (No. 2019-211). <http://www.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degreeCode=1012&classCodes=1004,1016,1038&openYear=2019&openMonth=12>
- Ministry of Education. (2020).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partial amendment* (No. 2020-2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80334>
- Ministry of Education. (2021, April 20). *Discussions with the public o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ess releas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17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Mun, Mijeong, & Chung, Hyunsong. (2019). An analysis of phonics in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Teacher Education Research*, 58(4), 471-482.
- Yoon, Yeo Bom (2019). An analysis of phonics in primary English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8(1), 99-116.